

Working Paper 2011 - 2

행복지수와 인재개발

조은상

2011. 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행복지수와 인재개발

조은상¹⁾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1
II. 인재개발의 새 테마: 개인의 행복 방정식	4
III. 국가별 지표와 행복의 결정요인	9
IV. 결론 및 제언	23
참고문헌	26

연구의 개요

- 1990년대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은 '삶의 질'을 발전의 잣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
- 센이 주장한 수준 높은 삶의 질이란 기능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를 가지고, 충분한 수명을 누리며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 삶의 질 지표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행복지수
- 행복지수를 높이는 중요한 과제에 대한 HRD의 역할은 무엇인가?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E-mail: escho@krivet.re.kr 혹은 aquinascho@hanmail.net). 워킹페이퍼 심의 시 날카로운 비평과 피드백을 해 주신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개인적 차원에서는 유년기 이전의 행복소질을 계발하기 위해 부모의 태교, 3살까지 부모의 정성어린 보살핌, 가치관과 욕망충족의 균형도, 나아가 행복 훈련을 비롯한 가정에서의 보살핌과 가르침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짐
-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굴하고 장점을 토대로 삶을 설계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자신의 장점과 꿈을 토대로 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잡아야 함
- 기업에서는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제도 도입하여 종업원의 행복지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종업원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여 실행할 필요 있음
- 정부는 행복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책 입안시에도 우선적으로 행복지표를 고려하여 행복 경제, 웰빙지수 혹은 국민총행복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개념을 중시할 필요가 있음

- 주제어: 행복, 인재개발, 행복지수

I. 들어가는 말

역사이래로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한결같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돈이 마치 행복의 척도인양 여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복권에 당첨되어 수십억의 돈을 횡재한 사람들이 몇 년 후에는 행복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참한 삶을 산다는 조사결과는 돈=행복이라는 수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물질주의적인 중심의 20세기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GDP나 21세기에는 인간의 삶의 질과 웰빙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²⁾. 특히, 1970년대 이후 선진국의 경제가 침체하면서 성장지향적인 경제 운영방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GDP가 국민생활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경제학자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은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이 반드시 국민 행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주장하여 GDP의 한계를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경제 일변도에서 삶의 질 및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오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은 GDP 대신 ‘삶의 질’을 발전의 잣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센³⁾은 그의 저서 <합리성과 자유(Rationality and Freedom)(2004)>에서 “인간은 자기 복지(행복)를 인식하며 자신만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실체(entity)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치와 목표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가치와 목표에 따라 행동하는 실체”라고 규정한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은 아마르티야 센의 역량 이론에 기초하여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개발하였다. 센의 역량이론에 의하면 수준 높은 삶의 질이란 기능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를 가지고, 충분한 수명을 누리며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서 가난은 단순한 소득의 부족이 아니라 역량을 축적할 기회의 박탈을 의미한다⁴⁾.

2) OECD준비기획단(2009). 성장중심에서 행복한 미래로, 한눈에 보는 제3차 OECD 세계포럼, 통계청. 256쪽 참조.

3) 아마티아 센 저, 원용찬 옮김 (2008), 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 갈라파고스.

삶의 질과 행복지수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NEF(New Economics Foundation)의 행복지수(HPI), 미시간 대학의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EIU(Economics Intelligence Unit)의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fe index), World database of Happiness의 국가 총 행복측정 등이 대표적이다. 2006년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측정은 17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0.965점을 얻은 노르웨이가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0.912로 26위였다. 같은 해 NEF(New Economics Foundation)의 행복지수(HPI)는 178개국을 조사했으며 41.1점을 얻은 한국은 102위에 머물렀다. 1999년~2001년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78개국에서 실시한 세계 가치 조사(World Values Survey) 결과를 보면 세계 경제대국 15위권에 해당하는 한국의 행복지수는 49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1인당 GDP 등 경제적 지표가 한국에 못 미치는 나이지리아가 1위를 차지했다. 2005년 EIU(Economics Intelligence Unit)의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fe index)는 111개국에서 조사되었는데, 8.333점을 얻은 아일랜드가 1위를 차지했고 6.877점의 한국은 30위에 머물렀다.

<표 1-1> 삶의 질 측정지수와 연구기관⁵⁾

지수명	연구기관	평가결과			
		연도	평가국가	1위	한국
인간개발지수 (HDI)	UNDP	2006	177	노르웨이 (0.965)	26위 (0.912)
행복지수 (HPI)	NEF (New Economics Foundation)	2006	178	베누이투공화국 (68.2)	102위 (41.1)
세계가치조사 (World Values Survey)	미시간 대학	1999-2001	78	나이지리아	49위
삶의 질 지수 (Quality of life index)	EIU (Economics Intelligence Unit)	2005	111	아일랜드(8.333)	30위 (6.877)
국가 총 행복측정	World Database of Happiness	2005	91-95	스위스 등	12~53위

자료: Dae You Kim (2007), Measuring a Better Future Happiness in the Korean context를 수정 (주재선(2007)에서 재인용).

4) OECD준비기획단(2009). 성장중심에서 행복한 미래로, 한눈에 보는 제3차 OECD 세계포럼, 통계청.
 5) 주재선(2007), OECD 포럼과 행복지수, 젠더리뷰 vol.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83. 참조

그렇다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어떻게 높이고 이러한 중요한 과제에 대한 인재개발(HRD)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 뿐 아니라 직장생활, 나아가 일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돌이켜 보게 하는 물음이다. 따라서 이 질문에 터하여 우리 모두에게 인재개발의 새로운 측면인 행복이란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을 행복방정식의 틀 안에서 살펴보고, 국가의 행복지수를 살펴본다. 그리고 행복을 테마로 한 인재개발의 방향을 개인, 기업, 학교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제시하여 다양한 주체가 행복을 지향하는 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인재개발의 새 테마: 개인의 행복 방정식

그동안 인재개발의 초점은 지식과 기술, 기능의 개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권대봉, 1998; 이무근, 2003; 조은상, 2007).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과 기술, 기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나 기술, 기능의 향상이 행복감을 만드시 가져다준다고 말할 수 없다. 행복한 인재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점에 앞으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Maslow(1954)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인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및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의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대체적으로 인간은 기초적인 욕구들인 생리적인 욕구와 안정, 사랑, 존중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고 난 후 자아가 실현될 때 행복감이 증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한 인재개발을 위해 Maslow가 제시한 5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이 가장 중요해지며 가끔은 비도덕적이고 비합법적인 행동까지 유발하게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리적인 욕구의 초월을 위한 인간 존재적인 노력도 하게 된다. 인간이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환경은 생리적인 욕구와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행복추구의 기본이 되므로 주택의 보급률은 행복지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사람은 홀로 있기보다는 가정이나 직장, 이웃, 교회 등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한 점에서 가정의 회복, 이웃의 지역 공동체성의 회복은 개인의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성취하면서 살아갈 때 더욱 행복해진다. 개인적인 목표나 직업적인 목표, 혹은 가족의 목표를 통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 소명을 발견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며 행복지수는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든 국가든 행복지수는 Maslow의 욕구 5단계와 맥을 같이 하면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 논의에서는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행복방정식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버전의 행복방정식을 도출해보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개인의 행복 방정식 1.0

손기원(2003)은 인간의 행복도는 물질적 진화 수준, 정신적 진화 수준 그리고 정신적 진화와 물질적 진화의 균형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개인의 행복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H(d) = xV + yD + zB$$

H(d) : 행복도(degree of happiness)

V: 가치관의 실현 수준 (자아실현)

D: 욕망의 충족 수준 (생리적 욕구 - 존경의 욕구)

B: 가치관과 욕망충족의 균형도 (조화의 정도)

x, y, z: 상수

이 방정식에서 Maslow가 말하는 욕망의 충족(1단계에서 4단계 욕구까지의 충족: 물질적 요소) 수준보다 가치관의 실현(5단계 욕구 충족: 정신적 요소) 수준이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치관과 욕망충족의 균형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상 사람들은 대부분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자아실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욕망과 자아실현의 불균형이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선진국의 행복지수가 낮은 원인도 바로 이러한 불균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 행복 방정식에는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변수들이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지 알기가 힘든 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욕망을 충족시킬 때 행복이 증진되는지, 또 어떤 욕망과 가치관이 균형을 이뤄서 행복감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2) 영국의 행복지수⁶⁾

영국의 행복지수는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Rothwell)과 인생상담사 코언(Cohen)이 만들어 2002년 발표한 행복공식이 대표적인 행복지수라 할 수 있다. 이들은 18년 동안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80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상황을 선택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행복은 '인생관·적응력·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P(personal), 건강·돈·인간관계 등 생존조건을 가리키는 E(existence), 야망·자존심·유머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higher order)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3가지 조건 가운데서도 생존조건인 E가 개인적 특성인 P보다 5배 더 중요하고, 고차원 상태인 H는 개인적 특성인 P보다 3배 더 중요하다고 결론짓고 있어 각각의 변수에 다른 가중치를 주고 있는 점에서 앞의 행복방정식보다 조금 더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지수를 공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text{Personal} + (5 \times \text{Existence}) + (3 \times \text{Higher order})$$

3) 개인의 행복 방정식 2.0

김명소(2006)는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매스로우의 욕구 5단계를 활용하여 생존, 관계 및 성장의 요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복 방정식을 제시하고 있다.

$$\text{행복} = 2.5 * E(\text{생존}) + 2.5 * R(\text{관계}) + 5 * G(\text{성장})$$

Rothwell & Cohen (2003)이 개발한 영국의 행복지수는 생존 요소가 가장 높은 요소로 나타나 있는 반면, 김명소의 행복 방정식은 성장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김명소의 행복방정식의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경제력, 사회, 정치, 문화, 환경, 외모, 건강이 생존 욕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녀의 바른 성장,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및 사회적 지위 및 인정은 관계

6) Rothwell, C & Cohen, P (2003). Happiness is no laughing matter. Happiness Report.

욕구와 관련되어 있어 인재개발과 관련하여 관계능력이 중요한 능력으로 부상되고 있다(이무근, 1997; 정철영, 1998). 성장의 욕구는 자기 수용감,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여가, 긍정적 인생관, 사회봉사 및 종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 리더십, 집중하는 능력 및 창의력 등의 인재개발 요소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조은상, 2000; 한준상, 2003). 하지만 이 행복방정식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유전적인 요인, 가치관과 욕망충족의 균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4) 개인의 행복 방정식 3.0

김명소(2006)가 제시한 행복요인 이외에 개인의 행복방정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는 유전적인 요인, 부모의 태교로 인해 영향을 받는 성품과 기질, 유아기 시절 부모로 받는 보살핌과 사랑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삶은 대체로 3살 이전에 이미 형성된다고 말한다. 부모로 받은 유전적인 요인과 더불어 어머니의 뱃속에서 인간의 두뇌, 정서 등 많은 부분이 이뤄지고 3살까지의 발달이 전 생애 발달의 70-80%를 좌우한다(김성희 외, 1998; 배병철, 2005). 이러한 점에서 아래의 방정식은 부모의 유전적 요인, 태교 및 3살까지의 부모의 보살핌 뿐 아니라 위의 행복 방정식 2.0에서 고려한 생존, 관계 및 성장의 요소를 고려하였으며 나아가 행복훈련을 통해 행복도가 높아진다(Seligman, 2002)는 최근 긍정심리학의 성과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복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H(d) = xP + yT + zC + 2.5 * E + 2.5 * R + 5 * G + E$$

H(d) : 행복도(degree of happiness)

P: 부모의 유전적 요인

T: 부모의 태교 정도

C: 3살까지 부모의 보살핌 여부

E: 생존

R: 관계

G: 성장

E: 행복훈련

x, y, z: 상수

5) 논의

위의 개인의 행복 방정식 3.0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생존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 정치, 환경, 문화, 건강 등의 요인,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와 관련된 요인, 그리고 자기 계발, 목표 추구, 긍정적 인생관, 사회봉사, 종교 등과 관련된 성장 요인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행복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행복방정식의 변수를 측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따른다.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중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는 것도 있지만 부모의 유전적 요인과 같이 매우 주관적인 부분도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인 변수의 경우 이를 어떻게 측정을 해야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변수를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특정 목적이 있는 기존의 설문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제약이 많이 따르고 새로운 설문을 개발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개인행복방정식과 국민의 행복지수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의 행복감이 향상되면 국민전체의 행복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개인적 요인(Personality factor) 뿐 아니라 상황적 요인(Contextual and situational factor), 인구학적 요인(demographic factor), 제도적 요인(Institutional factor),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 그리고 경제적 요인(Economic factor)도 포함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보다 더 포괄적이고 제도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정책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감이 높으면 대체적으로 국가의 행복지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등은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II. 국가별 지표와 행복의 결정요인

그동안 국민의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GDP와 GNP가 중요한 지표였으나 최근 여러 국가에서는 국민의 행복, 복지, 웰빙을 포함하는 지표가 중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발전은 행복이나 웰빙 지표내 하나의 요소로서 흡수되고 있다.

국민의 행복지수와 관련된 각종 연구를 보면 행복의 결정요인을 6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 각 요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⁷⁾. 첫 번째 요인은 개인적 요인(Personality factor)으로 개인 간 행복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하며 강력한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요인은 상황적 요인(Contextual and situational factor)인데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을수록, 혼인상태 별로 기혼자의 행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demographic factor)으로, 성별과 연령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의 행복지수가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젊은 층에서 높고 중년에서는 낮으나 노년에서 다시 높아지는 U자형 관계를 보이고 있다. 네 번째 결정요인은 제도적 요인(Institutional factor)으로서 직접 민주주의에서 행복정도가 더 높았으며, 이상적인 정부 형태와 복지국가의 질적 특성과 행복간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정치적, 개인적 자유가 행복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섯 번째 결정요인은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으로 이 요인은 다른 요인과 달리 거시적 수준의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후 변화가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행복간의 관계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 모두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Economic factor)이 언급되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GDP와 GDP 성장률이 행복에 미치는 역할은 분명하지 않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유한 사람의 행복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가 간 비교를 보면 소득 수준과 행복은 매우 미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일부 국가에서는 시간에 따른 일인당 소득 수준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와 일치하지 않았고, 교차분석을 보면 일인당 GDP의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시계열 분석에서 소득이 행복에

7) 주재선(2007), OECD 포럼과 행복지수, 젠더리뷰 vol.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82.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중에서 캐나다, 영국, 일본, 홍콩 등에서 국민의 웰빙을 측정하는 지표가 개발되어 국가 정책에 활용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부탄이 특별하게도 국민총행복지수 개발을 통해 행복지수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관련 지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캐나다의 웰빙 지표⁸⁾

캐나다는 국민의 웰빙(wellbeing)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지표(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를 개발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권화, 개인주의, 민영화 등은 대대로 내려오는 캐나다의 전통 가치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정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 발전이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캐나다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캐나다 웰빙 지표가 개발되었다. 이 지표는 시민교육, 지역사회 생명력, 시민 참여, 예술과 문화, 생활 수준, 시간 사용, 건강한 국민 및 생태계 건강의 전체 8개 영역으로 나뉘지며 캐나다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다양한 가치들, 예를 들면, 공정성, 평등, 다양성, 포용, 경제적 안정, 건강, 민주주의 등을 반영하고 있다.

<표 3-1> 캐나다 웰빙 지표의 8가지 영역

영역	주요 내용
시민 교육 (Educated Populace)	문맹률, 수리능력, 교육 수준, 교육의 질
지역사회 생명력 (Community Vitality)	지역사회 안전도, 결속력, 신뢰, 소속감, 포용, 정체성
시민 참여 (Civic Engagement)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
예술과 문화 (Arts and Culture)	문화전반에 대한 참여 (미술,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
생활 수준 (Living Standards)	안정된 고용, 적절한 소득, 저소득 비율 등
시간 사용 (Time Use)	유·무급 활동, 여가 시간
건강한 국민 (Healthy Populations)	건강 상태, 수명, 의료 서비스 만족도 등
생태계 건강 (Ecosystem Health)	대기, 수질, 숲, 환경의 지속 가능성

8) OECD 세계포럼 준비기획단(2006), OECD 세계 포럼의 이해 참조함.

(출처: OECD 세계포럼 준비기획단(2006), OECD 세계 포럼의 이해)

캐나다 웰빙 지표는 사회발전에 대한 측정은 해당 사회의 가치와 연계하여 구축되어야 하며, 좋은 지표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와의 연계성, 협력, 확실한 증거, 시민 참여, 의사소통의 다섯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캐나다 웰빙 지표는 이전에는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던 각 지표 전문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촉매제로 작용하여 엄격한 통계적·방법론적 접근으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좋은 지표 구축을 위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협력하에 이해와 활용을 확산시키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2) 일본의 관련 지표 사례⁹⁾

일본의 신 국민생활지표(PLI: People's Life Indicators)는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 생활국에서 1992년부터 제안되어 작성된 지표로서 국민생활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국민의 의식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활을 보다 적절히 나타내는 지표이다. 신 국민생활지표(PLI)는 개인 생활의 풍부함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의식주의 기본분야에 더하여 개인의 여가와 자유 시간 활용측면을 파악하여 주거, 소비, 근로, 양육, 보건, 여가, 교육, 교제/관계의 8개 활동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영역에 대해서 안전·안심, 공정, 자유, 쾌적의 4개의 평가축을 설정해 각 활동영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영역별 중요도에 따라서 지표구성을 하였다. 이 지표는 행복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라기보다는 사회전반에 대한 지표로 한국의 사회지표와 오히려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신 국민생활지표는 사회전체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생활상의 여러 측면에 대해 평가하는 입장을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을 둘러싼 사회전체의 구조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조변화지표의 영역은 고령화, 국제화, 집중화, 정보·서비스화, 그린화 등 5가지 영역에 걸쳐 있다.

9)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연구(1) 참조.

<표 3-2> 신 국민 생활 지표 (PLI: People's Life Indicators)

	지표체계
8개 활동 영역	주거
	소비지출
	근로
	양육
	보건의료
	여가
	교육
	교제 관계
생활 평가축	안전·안심
	공정
	자유
	쾌적

3) 홍콩의 삶의 질 지수¹⁰⁾

홍콩의 삶의 질 지수 (CUHK - Hong Kong Quality of Index)는 홍콩 Chinese University의 사회과학 교수진들에 의해서 개발되었는데,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문화, 경제, 환경 영역의 21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표들은 홍콩의 삶의 질을 추적하여 관련 정당, 정책입안자, 지역 공동체에 필요한 잣대를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매년 공식통계와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2008년도에 비하면 경제 및 환경관련 지수는 약간 상승하였으나 사회관련 지수들은 상당히 하락하였다. 2009년에 향상된 지수들은 평균사망율, 출생시의 기대수명, 국내총생산 대 공공보건지출비율, 일반적인 삶의 만족 지수, 정부수행지수, 전반적인 범죄율, 실질 대여 지수, 현 경제상황 지수, 국내 총생산(GDP) 대 공공교육지출비율(%), 공기의 질 및 수질 지수, 소음 지수, 지자체

10) The Center for Quality of Life, Hong Kong Institute for Asia-Pacific Studies,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10), CUHK,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

의 고체 폐기물 재활용 지수(%)를 들 수 있다.

<표 3-3> 홍콩의 삶의 질 지수

홍콩의 삶의 질 지수	
사회적 분류 지수	평균 사망율 (인구 천명당%)
	출생시 기대 수명
	국내 총생산(GDP) 대 공공보건지출비율 (%)
	전염병의 고시 (신고)비율(인구 1000명당)
	스트레스 지수
	일반적 삶의 만족 지수
경제적 분류 (보조)지수	언론 자유 지수
	언론 비판 지수
	정부 수행 지수
	전체 범죄율 (인구 1000명당)
	주택 보급
환경 분류 지수	실질 대여 지수
	실업률
	현 경제 상황 지수
	실질 임금 지수
	국내 총생산(GDP) 대 공공교육지출비율(%)
	지방대학에서의 학사 학위 프로그램과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령 참여 비율(%)
	공기 지수
	수질 지수(%)
	소음 지수(인구 1000 명당)
	지자체의 고체 폐기물 재활용 지수(%)

4) 부탄의 행복지수¹¹⁾

부탄은 티벳과 인도 동북부 사이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 잡은 인구 70만명의 소국으로 정치적으로는 1907년부터 세습군주제를 이어오다가 1950~60년대에 이

11) OECD Global Project (2008). 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11월 제 3호를 참조함.

르면서 조심스럽게 개방의 물결을 타고 있다. 1972년 왕위에 오른 4대 국왕은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이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겨 이는 환경보전, 교육, 관광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현실화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개방한 이웃의 네팔과 비교한 몇몇 지표를 보면 부탄의 개발 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민총행복(GNH) 개발 개념이 두 나라의 발전격차에 대한 주요한 원인의 하나임을 나타낸다.

<표 3-4> 부탄과 네팔의 지표비교

지표	부탄	네팔
실업률	3%	42%
인플레이션	4.9%	6.4%
평균 수명	65.5세	60.9세
식자율 (literacy rate)	59.5%(2005년)	48.6%(2001년)
부패인지도 (1위=부패도 최저)	46위	132위

국민총행복(GNH)의 핵심은 개발의 경제적·비경제적 목표의 균형이며, “경제성장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에 대해 스탠포드 대학의 마르크 만콜(Marc Mancall) 교수는 “국민총행복(GNH)는 특정한 목표가 있는 변화로 가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경제발전은 오로지 하나의 요소로서 이 목표 안에 의식적으로 흡수되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2008년 초 부탄의 신생 의회는 최초의 헌법을 비준했는데, 헌법 제9조에서 “정부는 국민총행복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정부교체와 정당교체 중에서도 국민총행복(GNH) 정책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인데, 정치인들은 헌법에 천명된 국민총행복(GNH) 추구 가능 조건들에 대해 정통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부탄 정부는 “국민총행복(GNH) 지수”의 수립에 대한 기획안을 입안하였는데 주요 집행기관은 수도 팀부에 위치한 소규모 민간 연구기관인 “부탄 연구센터”이다. 이 연구소는 부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설계·수행하고 국민총행복(GNH) 지표를 수립하여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지수를 발전시키는

과제를 위탁받았는데 이 지수의 핵심 아홉 개 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부탄연구센터의 GNH 핵심 영역

영역	주요 내용
심리적 웰빙	심리적 복지 지표, 감정 균형 지표, 영성지표
건강	건강상태 지표, 건강지식 지표, 건강에 대한 장애물
교육	교육 수료 지표, 국어 지표, 역사 및 민속 이해 지표
시간활용 및 균형	수면시간, 총 노동시간, 비노동 활동
문화적 다양성 및 복원력	방언 사용 지표, 전통 스포츠 지표, 지역 축제 지표 예술적 숙련 지표, 가치 전달 지표, 기초적 가르침 지표
굿 거버넌스	정부 성과 지표, 자유 지표, 제도적 진실 지표
지역사회의 활력	가족 활동성 지표, 안전 지표, 상호성 지표, 신뢰 지표 사회적 지지 지표, 사회화 지표, 관계 친밀도 지표
생태 다양성 및 복원력	생태적 퇴화 지표, 생태적 지식 지표, 조립 지표
생활수준	소득 지표, 주택 지표, 식량 안정성 지표, 곤궁도 지표

위의 아홉 개 영역은 국민총행복(GNH)의 불교적 토대를 반영한 것으로 총체론적 세계관 및 모든 현상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확신과도 상통한다. 조사 설문지는 29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적, 사회적 행복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는 다양한 측면을 다루었다. 현재 부탄은 국민총행복이란 새로운 접근법을 실행하고 있지는 그 영향을 전부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다른 사회에서 이 체계가 어떻게 작동할지 결론짓는 것도 아직은 너무 이르다. 그러나 삶의 질 및 국민의 행복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그 측정에 대해 재고하려는 여러 시도들 속에서 부탄의 국민총행복(GNH)은 이 분야의 선구자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5) 한국의 행복지표

한국인의 행복지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김승권 외 (2008)의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¹²⁾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은 주로 타인과의 관계, 혹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12) 김승권 외, 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형의 긍정적인 감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 긍정적인 감정은 사랑, 화목, 이해, 신뢰, 만족, 보람, 희망, 기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안정과 가족, 배우자, 자녀 등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일의 유무, 성취감, 자기 수용감, 여가 및 자유, 사회적 지위, 자기개발, 자율성, 사회·정치·문화 환경, 대인관계, 외모,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10개 영역, 41개 지표로 구성된 행복지표가 개발되었다. 심리적 안정의 영역에서는 6개 지표, 가족·결혼, 개인적 관계, 일상생활 등의 영역은 4개 지표, 경제적 안정, 건강의 영역은 3개 지표, 지역사회, 주거 등의 영역은 2개 지표가 개발되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9개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표를 바탕으로 한 조사 결과 한국인의 행복수준은 67.8점으로 나왔다. 50점이 평균이고, 80점 이상을 매우 행복한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한국인은 '비교적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개별 행복지표가 전체 행복수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족·결혼생활 만족도, 가족의 건강수준 등이 가장 높게 나왔고, 자아 존중감, 긍정적 가치관, 가족관계, 출산 및 자녀성장, 부부생활(이성교제), 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 자신의 외모, 친구·동료관계 등에서 만족도 순서로 이어졌다. 반면, 만족스러운 수면, 구매·소유 유능감, 여가·휴식, 규칙적인 운동, 재산·소득의 소유·취득 충족감, 주거의 소유·질, 지역 사회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한국인의 행복결정 요인

영역	행복에 미치는 요인
심리적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 정도 ·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 자신의 청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 자기개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가족·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영역	행복에 미치는 요인
개인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의 규칙성 ·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Gender) · 연령 · 혼인상태 · 취업여부 · 종사상 지위 · 직업 · 개인소득 수준 · 가구소득 수준 · 종교생활여부 및 신앙수준
경제적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 정도 ·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 현재 일에 대한 급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 가족의 건강수준 · 규칙적인 운동 여부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출처: 김승권 외, 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87
수정 편집함.

한편,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¹³⁾.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410명을 대상으로 '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OECD 23개국 가운데 최하점수 '65.98점'을 얻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스페인(113.6점)보다는 47.6점이나 차이가 나고 OECD 평균 점수인 100점보다도 34점이나 낮았으며 겨우 꼴지를 면한 헝가리(86.7점)와도 20점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은 2009년 64.3점, 지난해 65.1점에 이어 3년 연속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주관적 행복지수'를 기록했는데 전체 OECD국가의 청소년 가운데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제일 적다는 것이다. 주관적 행복지수란 '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외로움' '주변상황 적응'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응답률을 수치화한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의 54.4%가 '가족'을 가장 많이 택했고, 그 다음으로 건강, 자유, 친구, 성적, 돈 순으로 답했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돈'을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답한 학생이 늘었다.

6) 비교분석

주재선(2007)의 연구에서 지적한 6가지 행복의 결정요인을 기준으로 위에서 살펴본 다섯 개 국가의 삶의 질·행복지수 평가 항목을 나누어 보면 아래 <표 3-7>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에는 캐나다의 시민교육, 건강한 국민, 일본의 주거, 교육, 홍콩의 국내총생산 대 공공교육지출 비율, 지방대학에서의 학사학위·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령별 참여비율, 부탄의 식자율, 교육, 한국의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자신의 청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자기개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등의 항목이 해당한다.

둘째, 건강, 혼인상태 등을 알아보는 상황적 요인에는 캐나다의 건강한 국민 일본의 양육, 보건의료, 교제관계, 홍콩의 국내총생산 대 공공보건지출 비율, 전

13) 경향신문. 2011년 5월 4일.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참조.

염병의 고시비율, 스트레스 지수, 주택보급, 부탄의 건강, 심리적 웰빙, 한국의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가족의 건강수준, 규칙적인 운동 여부 항목이 속한다.

셋째, 성별, 연령과 같은 통계와 관계있는 인구학적 요인에는 홍콩의 출생시대수명, 부탄의 평균수명, 한국의 성, 연령, 직업, 혼인상태,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개인소득 수준, 가구소득 수준, 종교생활여부 및 신앙수준 등이 해당한다.

넷째, 정부형태, 정치적·개인적 자유 등을 알아보는 제도적 요인에는 캐나다의 시민참여, 홍콩의 언론자유, 언론비판, 정부성과지수, 부탄의 굿 거버넌스, 부패인지도 등의 항목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환경적 요인을 평가하는 데에는 캐나다의 생태계 건강, 홍콩의 공기·수질·소음 지수, 부탄의 생태다양성 및 복원력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

여섯째, 실업, 인플레이션, 성장률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서는 캐나다의 생활수준, 일본의 근로, 소비지출, 홍콩의 실업률, 현재 경제상황지수, 실질임금 지수, 부탄의 실업률, 인플레이션, 한국의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등과 같은 항목이 제시되었다.

<표 3-7> 국가별 지표와 행복의 결정요인

	결정요인	캐나다	일본	홍콩	부탄	한국
1	개인적 요인 (Personality factor)	문맹률, 수리능력, 교육 수준, 교육의 질, 건강 상태, 수명, 의료 서비스 만족도, 유·무급 활동, 여가 시간	주거, 교육	국내총생산 대 공공교육지출비율, 지방대학에서의 학사학위·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령 참여비율,	식자율, 교육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자신의 청소년기 성장 환경에 대한 만족도,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2	상황적 요인 (Contextual and situational factor)	지역사회 안전도, 결속력, 신뢰, 소속감, 포용, 정체성	양육, 보건의료, 교 계 관계	국내총생산 대 공공보건지출비율, 전염병의 고시 비율, 스트레스 지수, 주택보급	건강, 심리적웰빙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가족의 건강수준, 규칙적인 운동 여부

	결정요인	캐나다	일본	홍콩	부탄	한국
3	인구학적 요인 (demographic factor)			출생시 기대수명	평균수명	성, 연령, 직업, 혼인상태,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개인소득 수준, 가구소득 수준, 종교생활여부 및 신앙수준
4	제도적 요인 (Institutional factor)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		언론자유, 언론비판, 정부성과지수	굿거버넌스, 부패인지도	
5	환경적 요인 (Environmental factor)	대기, 수질, 숲, 환경의 지속 가능성		공기 지수, 수질 지수, 소음지수	생태다양성 및 복원력	
6	경제적 요인 (Economic factor)	안정된 고용, 적절한 소득, 저소득 비율	근로, 소비지출	실업률, 현재경제상황지수, 실질임금지수	실업률, 인플레이션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위에서 살펴본 5개 국가의 평가 항목을 6개 행복의 결정요인을 기준으로 나눠 볼 때, 캐나다, 홍콩과 부탄의 평가 항목이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국가의 경우 각국 상황에 맞는 다각적이고 세밀한 지표가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평가 항목은 개인적·상황적·경제적 요인에 치우쳐 있고 한국의 경우 제도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미비하여 국가차원의 행복지수로서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다소 힘들 것으로 보인다.

7) 종합

그동안 국가의 행복은 경제성장에 달렸다고 믿는 성장주의자가 전 세계의 경제정책을 주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경제적 가치가 국민의 행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어 왔으며 GNP 혹은 GDP를 측정하면서 국가의 발전 혹은 국민의 행복을 비교해 왔다. 하지만 점차 GNP나 GDP의 한계점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지표로서 국가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국가가 늘기 시작하였고

한국 역시 이러한 대열에 서기 시작하였다. 최근 OECD¹⁴⁾는 회원국들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 행복지수, 이른바 "Your Better Life Index"를 개발하였는데 OECD의 행복지수는 34개 회원국 모두를 주택,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지배구조,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등 총 11개 영역에 대한 점수를 매겨 도출하였다. 조사대상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26위를 기록하였다. 1위는 호주가 차지했고, 캐나다와 스웨덴, 뉴질랜드, 미국, 노르웨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일본은 19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교육, 치안, 취업, 학력 수준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일과 생활의 조화, 주거, 소득 등에서는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일은 OECD 평균(1739시간)보다 517시간 더 많이 했고 학력(평균 73%)은 높았다. 평균 가계 가처분 소득은 평균인 2만2284달러(약 2500만원)에 크게 못 미쳤으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도 평균치인 59%에 뒤떨어졌다.

국민들의 의식주, 교육, 보건, 고용 등 인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에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물질적, 정서적인 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기본 욕구가 만족되지 않는 소득 수준인 빈곤라인의 경우, 다양한 사회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¹⁵⁾. 보편적인 복지인가? 선택적인 복지인가? 복지 중심인가? 일자리 중심인가? 등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두고라도, 국민의 기본욕구 충족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국가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행이도 대한민국은 헌법 10조에 국민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행복지수에 대한 관심은 국민적인 차원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더욱 커지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행복 지수는 어떤 항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상적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따라야 한다. 즉, GDP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 있는가? 행복지수로서 측정해야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경제발전인가? 웰빙인가? 지속가능성인가? 보건 및 교육인가? 환경보호인가? 혹은 위의 복합적인 개념을 포괄하는 것인가?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아울러 각계 각층의 토론과 이에 따른 대응과 답변이 이뤄져야 할

14) 뉴스핌 2011년 5월 25일. OECD 행복지수 출범, 한국 평균 이하. 및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참조

15) 니시가와 준(2007)은 개발과 행복, '마음의 풍요로움'을 아시아에서 배운다.에서 행복의 요건으로서 물질적 수준과 정신적 수준을 나누고 있다(107쪽). 요모타 이누히코 외 엮음, 황순희 옮김. 행복, 변화하는 생활양식, 도서출판 한울 참조.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갈등 및 분쟁 가능성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키므로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평화가 매우 중요한 행복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¹⁶⁾. 또한 한국 국민의 교육열을 고려하면 교육 수준과 교육의 질, 특히 경쟁적인 사회에서 협동 능력의 배양은 가정이나 학교, 지역 공동체 등에서의 소속감 및 응집력을 강화시켜 국민의 행복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로 지역 사회의 생명력이 파편화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안전도, 결속력, 신뢰, 소속감, 포용력 등이 중요한 행복지표로 부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질문과 다양한 가능성을 던져보면서 대한민국의 행복지표를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행복지표를 벤치마킹하여 다음과 같은 영역을 제시하고자 한다¹⁷⁾.

<표 3-8> 한국의 행복 지표의 8가지 영역 예시

영역	주요 내용
교육 서비스의 수준과 질	문맹률, 평생교육 서비스, 교육 수준, 교육의 질, 협동능력
지역사회의 활력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안전도, 결속력, 신뢰, 소속감, 포용, 의사소통, 연대성
공동체 문화 및 시민 참여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 공동체 문화, 좋은 정치활동
문화적 다양성	문화전반에 대한 참여, 민족문화 증진, 다문화 수용
생활수준	안정된 고용, 적절한 소득 및 노후 생활 연금, 주택 보급률, 양극화의 완화, 여가 시간 활용 등
국민의 건강, 보건, 의료	양육 서비스, 건강 상태, 수명, 의료 서비스 만족도, 스트레스 지수, 심미적 복지, 감정 균형 지표
아시아의 평화	남북한의 갈등 해소, 남북경협, 평화협정, 통일로의 일정
생태계 건강	대기, 수질, 숲, 강, 바다 등 환경의 지속 가능성

16) 2011년 1월 조선일보의 특집은 한국인의 행복에 대해 다루었으며 북한과의 군사적인 긴장이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9년도 GPI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개 중 한국은 3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 등으로 주변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다소 불안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군사화' 영역에서도 군사비 지출이나 군인 수, 무기 수입 등의 점수가 높아 비평화적인 상태로 나타났다. OECD준비기획단(2009). 성장 중심에서 행복한 미래로, 한눈에 보는 제3차 OECD 세계포럼, 통계청. 232쪽 참조.

17) 이 지표는 시안일 뿐이며 앞으로 다양한 계층, 다양한 구성원에 의해 검증되어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미국의 경우 194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실질 국민소득이 3배 이상 상승했지만 행복지수는 하락했다. 이 기간 동안 이혼은 2배, 10대 자살률은 3배, 폭력범죄는 4배, 죄수는 5배, 미혼모 신생아 비율은 6배, 우울증은 10배로 늘었다. 국민소득이 15,000-20,000불을 넘어가면 경제적 풍요가 행복지수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한다.

현재 TV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돈, 물질적 풍요, 경제 등에 대한 이야기에 치중하고 있으나 행복과 관련된 가치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행복지수가 높은 부탄, 콜롬비아 등의 나라는 국민들의 행복감을 고양하는데 종교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종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큰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20대가 91.3%로 가장 높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다가 70대는 67%로 가장 낮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남에게 봉사할 때(93.5%)와 직장에서 일할 때(91.5%), 가장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¹⁸⁾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30,000불 시대를 만드는 것 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감을 어떻게 100위권에서 10위권 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를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입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워킹페이퍼에서는 개인, 학교,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 행복지수와 관련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1) 개인

교육적 관점 뿐 아니라 행복한 인재개발의 관점에서 유년기 이전의 행복소질¹⁹⁾을 계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의 태교, 3살까지

18) 문화일보 2008년 4월 2일, 41~55면

19) 행복소질에 대해서는 Peterson & Seligman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참조.

부모의 정성어린 보살핌, 가치관과 욕망충족의 균형도, 나아가 행복훈련을 비롯한 가정에서의 보살핌과 가르침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²⁰). 따라서 부모들은 초등학교 학령기 이후 교육투자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산 전에 좋은 품성(DNA)을 가진 자녀를 위한 준비, 10개월간의 태교, 생후 3년간의 돌봄과 더불어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출생 전부터 행복한 자녀 교육에 대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²¹). 더불어 스스로의 강점과 역량을 계발하고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여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학교

오늘날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진학을 위한 교과목 교육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행복권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수 십 만명의 청소년들이 우울증이나 ADHD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60-70만명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OECD 국가중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주관적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는 조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²²).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학교 성적 우선 교육이 아니라 행복을 지향하는 교육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발굴하고 장점을 토대로 삶을 설계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자신의 장점과 꿈을 토대로 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사들 스스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한 행복 교육 및 훈련이 일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기업

20)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경향신문, 2011년 5월 4일.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참조)는 이러한 준비가 가정 내에서 이뤄질 때 아이들의 행복이 최대화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21) 조은상 (2011).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 생명-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인간연구 제20호 별책,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참조.

22) 경향신문, 2011년 5월 4일.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참조.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롤프 옌센은 미래에는 이야기와 꿈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며 기업들의 미래 핵심 경쟁력으로 행복도 중요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²³⁾ 기업이 중시하는 좋은 일자리를 넘어서 행복한 일자리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는 말이다.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행복한 직장, 좋은 직장의 경우 생산성이 높고 기업의 성과가 더 좋다는 많은 연구결과²⁴⁾를 고려할 때 종업원의 행복지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종업원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선 행복훈련, 행복 리더십 등의 교육과 아울러 행복한 직장 설계, 행복한 인간관계 등의 도입으로 직장과 직업생활에서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4) 정부

정부는 국민의 행복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정책 입안시에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정운영의 기준으로서 행복 경제를 주창하고 GDP를 대체할 웰빙지수 혹은 국민총행복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개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행복위원회(가칭)를 통하여 개발경제시대의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행복경제의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빈곤과 건강, 보험, 교통 문제, 안정적인 경제발전, 자연환경보호, 민족문화 증진, 생활수준과 시간의 배분, 교육, 건강, 환경, 공동체, 좋은 정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한국적인 행복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인의 행복 방정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더불어 개인의 행복방정식과 국가의 행복 지표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3) 김영환(2008), 스토리로 승부하라, 새빛에듀넷, p.204

24) Pfeffer(1998)는 조직이 사람을 최우선시할 때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는 물론 조직의 경제적 성과 역시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권대봉(1998), 『산업교육론』. 문음사.

김명소 외(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 개발』. 한국건강심리학회.

김명소 외(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한국조사연구학회.

김성희 외(1998), 『유아발달』. 교육과학사.

김승권 외 (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한(2008), 『스토리로 승부하라』. 새빛에듀넷.

배병철(2005), 『다시 보는 태교신기』. 정보사.

장영식(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2007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기원(2003), 『정신혁명, 행복방정식이 바뀐다』. 경영베스트.

아마티아 센 저, 원용찬 옮김(2008), 『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 갈라파고스..

요모타 이누히코 외 엮음, 황순희 옮김(2007), 『행복, 변화하는 생활양식』. 도서출판 한울.

이무근(2003), 『직업교육학 원론』. 교육과학사.

이무근(1997),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철영(1998), 『직업기초능력에 기초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은상(2011),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 생명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인간연구』 제20호 별책,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조은상(2007), 『인재개발론』, 범한.

조은상(2000), 『인적자원개발의 다학문적 접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재선(2007), 「OECD 포럼과 행복지수」, 『젠더리뷰』 vol.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준상(2003), 『산업인력자원개발』. 한국학술정보..

황명진 외(2006),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한국조사연구학회.

OECD 세계포럼 준비기획단(2006), 『OECD 세계 포럼의 이해』. .

OECD준비기획단(2009), 『성장중심에서 행복한 미래로, 한눈에 보는 제3차

- OECD 세계포럼』 . 통계청.
뉴스핌. 2011년 5월 25일. OECD 행복지수 출범, 한국 평균 이하.
문화일보, 2008년 4월 2일, 41~55면.
조선일보, 2011년 1월, 한국인의 행복.
- Ryff, Carol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Kim, Dae You (2007). 「Measuring a Better Future」, Second OECD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Istanbul, Turkey, June 27-30, 2007.
- Myers, David G., Diener, Ed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 Lee, Dong Yul, Park, Sung Hee et etc, (1997). 「CRITERIA OF HAPPINESS」
- Lambert, Jill (2005). 「The Economics of happiness」, Canadian Business
-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sychology. New York: Harper and Row.
- Pfeffer, J (1998). The human equation: Building profits by putting people first.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Peterson & Seligman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thwell. C & Cohen, P (2003). Happiness is no laughing matter. Happiness Report.
- Seligman, M.E.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김인자 역. 『긍정 심리학』, 서울 물푸레, 2006)
- The Center for Quality of Life, Hong Kong Institute for Asia-Pacific Studies,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10), CUHK,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
- Veenhoven, Ruut (2007). 「MEASURES OF GROSS NATIONAL

HAPPINESS」, Second OECD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Istanbul

Yoshizoe, Yasuto (2007). 「Japanese Statistics and Happiness Measurement」, Second OECD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Istanbul

<http://blog.daum.net/ckleea/4023527>

<http://blog.daum.net/skymedia/16050806>[행복경제로 가는 길]

<http://dnk.mofat.go.kr/kor/eu/dnk/main/index.jsp> 외교통상부 덴마크 대사관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http://www.ambseoul.um.dk/ko/> 주한 덴마크 대사관